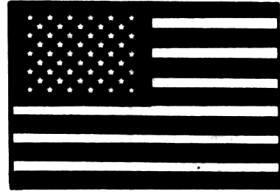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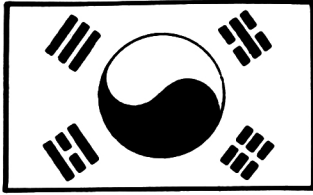


---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34

Ke-Hi Oh - Publisher  
Sung-Hwi Pak - Editor  
(206) 362-4500

# 한인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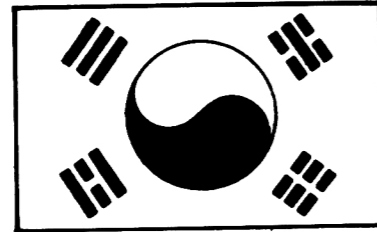
##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 1



祝 發展

시애틀-와싱턴주 한인회



주 시애틀 총영사 이문수 외 직원일동  
KOREAN CONSULATE GENERAL  
(206) 682-0132

2033 6th Ave UA Bldg #1125  
Seattle, WA 98121

謹 賀 新 年

한인 기업의 발전을 祈願합니다.

지점장 오세주 외 직원일동



한국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SEATTLE BRANCH  
600 UNIVERSITY STREET  
SEATTLE, WASHINGTON 98101  
(206) 622-7821  
HEAD OFFICE: 181, Ulchiro 2ka, Seoul, Korea  
TELEX NO: K24244, K24245, K27237, K27254,  
CABLE ADDRESS: KOEXBANK SEOUL  
C.P.O. Box 2924 (OFFICE HOURS): 771-46

축

발 전

84년도 신임 회장단과 한인회  
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서북미 상사지사 협의회

KOREA TRADE CENTER, SEATTLE  
(206) 623-3558/9

Sammi Corporation (206) 623-4426	Namyang Fishing Net Ind. Co. (206) 746-9547
Hyosung America Corporation (206) 824-7918	Hyundai Corporation (206) 682-1698
Ssangyong Corporation (206) 322-9380	Dong Wha Enterprise Company, Ltd. (206) 223-1096
Korea Shipping America (206) 625-1960	Eagon Industrial Company, Ltd. (206) 454-6630
Dae Woo Corporation (206) 621-9171	Hanjin Container Lines (206) 447-9428
Korea Marine Transport Company (206) 623-6868	Guh Sung Industrial Company (206) 455-3210
Korea Tacoma Marine Industry (206) 575-1225	Ip Sung Trading Company (206) 941-3473
Kooil Industrial Company, Ltd. (206) 621-8282	Jinil Industrial Company, Ltd. (206) 621-8282
Young Poong Corporation (206) 927-6024	Komelon (USA) Office (503) 641-5672

새해 인사 드립니다.

새해 에는 모든 고로 각가칭  
마다 건강과 평안이 항상같이  
하시기 기원 합니다.

1984년 새해아침

한인회 임직원 일동

권두언

우리는 해마다 년초에는 새로운 각오로 년중 계획을 세웠다가 연말이 되면 모든것을 뜻대로 다 이루지 못한채 아쉬운 한해를 넘기곤하는 일이 많습니다.

금년도 한인회는 전체 한인사회에 유익하고 보람된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배전의 도움을 주셔서 금년을 넘길때는 후회없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여 하셔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충고와 조언을 주시고 의견 교환과 대화를 통하여 총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84년의 한해를 바라 보면서:

시애틀 한인사회는 그간 많은 선배 고포들의 노력과 참여로 높은 이상의 전통을 쌓아온 것 같습니다. 가장 9위에 두는 이상을 봉사에서 찾고 있는 것을 알며 또한 상호 의존과 협조만이 이 한인사회와 개개인의 지속적 발전의 기본이 된다는 신념이 어디에서나 강조되고 또한 몸소 실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선배 고포들은 이 시애틀을 그들의 제 1의 고향으로 만들고 저 위역 이상을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 왔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해 아침에 느끼는 평온과 낙관 희망은 이들 선배 고포들의 덕임을 알아서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지난해 83년도 회장단 및 이사 임원단이 고포들의 희생적인 몰입양면의 협조에 감사하며 노력하던 모습과 그 이루어 놓은 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근간의 고포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이같은 이상을 지켜가야 하는 과제에 덧붙여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60년도에 사원집에 불과하던 한인가족이 불과 20년만인 1983년도에 2만 여 라는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임으로서 이 고포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놓았다고 보겠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한인사회와 한인회에 새로운 과제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고포들 자체 가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살아가려는 모습이 많은 종교 단체, 전문 단체, 봉사 단체, 그리고 각종의 업체들의 활발한 생성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이 고포들의 대내적 임무는 이들 단체와 업체를 보호 육성하면서 고포끼리 서로 의존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더욱 키워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로 여러 직종의 고포들이 미국 사회에 많이 진출하면서 이들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권익의 옹호와 고포 각자의 아이덴티티의 증진이라는 과제가 대역적으로 그 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늘 자기 구실을 하면서 외부 일반사회에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상징적 존재를 중심으로 늘 뭉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인회의 작업은 이들 몇 가지 도전에 우리가 응하여 갈 수 있도록 고포사회를 고무하고 또 합심하여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며 한인회가 한인 고포사회의 상징적인 구심점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온과 번영을 비오면서 감사합니다.

한인 회장 오 계 희



운명을 같이하는 한인들

새해를 맞이하여 동포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깃들고 기쁨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금년도 한인회 이사장직을 맡기에는 적격자가 아닌 줄 누구 보다는 본인 자신이 잘 알면서도 주위의 동료, 선배, 친지들의 권유를 끝까지 뿌리치지 못하고 이 직위를 수락했습니다. 항상 한인회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누군가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던 본인으로서 설사 이사장직이 명예(명예아닌)라 할지라도 한사코 거절하는 태도는 한인사회에 좋은 표상이 되지 못할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입니다.

오천년동안 수많은 역적들의 침략과 수탈속에서도 끈끈히 살아남은 강인한 한민족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는 수만리 이민은 이땅에서도 피눈물나는 노력과 강철같은 루지로 모두가 이민사에서 어느 민족보다 빠른 성장과 안정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실로 우리민족의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반위에서 이제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자랑스러운 우리의 후예들이 많이 배출되어 이민역사에 영광스러운 시기를 맞게 되리라 기대와 희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욕에리"라 할까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진 우리민족의 흠은 한국에 있을때나 이민에서나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신이 결핍되어있고 록 나아가서 서로 해치는 일은 없었는지 자신을 돌보아야 할 일이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미국인들 사회에 빨리 적응하여 파고들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개인적인 이익에 너무 집착하고 공동사회를 위한 활동에 너무 냉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사회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는 사례를 우



리는 너무나 종종 볼 수는 없을가요.

금년 새해에는 시애틀뿐 아니라 워싱턴주 전 주민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참 사랑으로 충고 하듯 잘못된 이웃을 도와 깨우쳐주시고 상부상조하는 협조정신으로 이민역사에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사오년간의 역사박에 없는 한인회는 사람으로 치면 십대 청소년과 같은 어리면서도 잠재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당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전 어느때보다도 여러 고민에 따뜻한 충고와 도움과 협조없이 는 우리 스스로와 한인사회가 제대로 정상 발육을 할 수 없습니다.

금년 한해는 저희들 한인회 이사들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 나오도록 사랑의 채찍으로 많이 때려 주시고 울고 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저희들의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362-4500(한인회 전화번호)나 522-2494(한인회장)를 언제나 이용해 주시고 이전 번호는 친구집 전화번호 같이 누구나 기억하고 자주 쓰는 한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올해 감사년이 우리 한인사회의 발전에 이정표가 될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이사장 엄도승





경애하는 고민 여러분 !

어려운 시련과 비통함을 겪었던 한해, 개해년을 보내고 우리는 이제 조국의 계속적인 발전과 고민사회의 큰 변명을 기약해주는 희망에찬 갑자년의 새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여러분들께 있어 금년한해는 자기 자신과 고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뜻깊은 한해가 되고 또 각 가정에도 확복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해에 우리는 세계의 이목을 끈 엄청난 사건들을 용기와 침착 그리고 민족적 단합과 슬기로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있어 우리의 입장이 지지되고 우리의 우방국가들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들이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작년 9월 1일 KAL기 격추 사건과 또 10월 9일의 랑군 폭발사건으로 이를 더욱 몸소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정의에 입각, 세계평화에 기여 할수있는 우리의 국력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피땀어린 우리의 노력과 꾸준한 진취적 자세로 배양되어 온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것입니다.

이와같은 국심한 시련과 아직도 세계적인 경기가 크게 불황을 타피 못하고 있는 여건속에서도 우리나라는 8%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고 83년도 수출목표 235억 불을 무난히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600만은 생산 독구를 가진 세계 제2의 조선국가로 성장했고 년 900만은 생산하는 세계 제6위의 강철생산국가로 등장하고 있으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드디어 \$2,000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무시 못할 국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품은 130여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한국의 뛰어난 기술은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등지에서 여러 나라들의 건설사업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원들은 5대양에서 활약하고 해양국가로서도 성장하는 우리의 면모를 크게 세계에 떨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눈부신 국가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함으로써 국민총생산의 6.3% 그리고 국가예산의 35%를 방위비로 부담함으로써 자유진영 국가중 미국과 더불어 최대의 방위부담을 짊어지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과중한 방위 부담은 우리 경제성장에 압박을 주고있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엄연인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복귀는 허무맹랑한 선전과 한국내 고란작전등으로 남침 무력도발을 위한 획책을 중지하고 우리가 제외한 진정한 평화적 통일 협상에 응함으로써 6,000만 한민족의 국가적 번영과 발전대열에 참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배달민족의 영광을 물려주어야 할것입니다.

친애하는 고민 여러분 !

우리 조국은 선진조국 창조를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외 일치단결된 이스라엘인들이 자기 조국을 방위하고 부강한 나라로 건설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1억주위 아랍민족에 의해 망했을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남 국민들이 자기 조국을 수호하려는 단결된 힘을 과시할수 있었다면 75년에 그와같이 무력하게 공산수중에 함락되지 않았을것입니다. 우리국가의 계속적인 발전과 번영 그리고 튼튼한 국력 배양을 위하여 해외 동포들도 국가 발전에 참가한다면 우리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압당겨 성취될것입니다.

인도의 간디 수상은 조국을 떠나는 수많은 해외 이민자들에게 "조국은 여러분의 조국애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유대 관계보다 정신적인 조국애를 강조 했습니다. 미국 내에는 75만명 이상의 한국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며 그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힘이 단결될때 미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영향권을 행사할수있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위치를 확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권익을 보호할수있는 여건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합된 실력을 발휘못한다면 무력한 소수민족으로서 남게될것입니다.

그동안 고민사회는 오랜 정착단계를 거쳐 착실하게 성장해 왔음을 볼수있습니다. 많은 미국사람들이 한국의 국가적 발전과 고포사회의 존재를 인식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미국 사회에서 우수한 한 민족으로서 인정받는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11월초 한국을 방문한 오레곤주의 Herb A. Ballin Jr. 상공회의소 회장부부는 솔직하게 여러가지 우려를 가지고 방한했으나 씩씩하고 웃음에 찬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고 희망에찬 한국을 보게되어 정말기쁘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미국내 한인사회를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질것은 사실입니다. 조국의 발전과 번영은 고민 여러분의 생활과 고민사회 발전과도 직결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고민사회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할수있는 일은 한인사회 대변 기관을 육성발전 시키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사회의 대변기관을 육성발전 시키지 못한다면 각자의 상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우리의 후세들을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것이나를 깊이 생각한다면 한인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될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튼튼한 사회단체의 보호를 받음으로서 개인적인 보호도 권익의 신장도 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민 여러분!

많은 우리 미래 사회건설을 위하여 1984년이 우리 모두가 자신을 가지고 각자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될것을 바라면서 다시한번 고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984년 1월 1일

주 시애틀 총영사

이 문 이 슈

### 공지 사항

#### 1. 여권갱신 발급 신청

81.10.1.이전 발급받은 여권은 83.12.31.까지 갱신 발급신청,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상금 타지역 여행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신청치 못한 고민이 상당수 있는바, 시급히 갱신 발급신청하여 주시기바람. 신청시 갱신 발급 신청지연 사유서를 기재 첨부바람.

#### 2. 유효기간 5년의 상용, 문화(복수)여권 재확인

83.6.13.이전 발급받은 상용, 문화(복수)여권은 본부 여권과에서 확인 조치를 득하여야만 사용 가능함. 다만 국외여행중인 해당자는 귀국 즉시 여권과를 방문, 상기 확인 조치를 득하여야 함.

#### 3. 제외국민 등록 신고

상금 당관 관할지역(와싱턴, 오레곤, 아이다호, 몬타나주)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고민 및 아국국민으로 제외국민등록 신고를 필하지 않은분은 여권 및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영사관을 내방, 신고를 하여 주시기바람.

주 시애틀 총영사관



부 회장 이 손 모



회 장 오 계 희



부 회장 이 현 진



총 무 허 권



재 무 최 학 기



섭 의 박 태 호



부 녀 KAE Y. MULLINS



교 육 백 경 속



홍 보 김 경 배



체 육 이 정 언



문 화 예 술 이 학 유



청 년 은 흥 남



편 집 박 승 휘

시애틀 한인 교민 여러분 :

다시 이 새해의 달에 특별한 부락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것은 교민 한분 한분의 한인회비 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각 교민 한분에게서 십불(\$10.00)씩을 한인회비로 받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한인회를 유지하고 몇가지 계획을 실천하는데는 자금이 필요하며 이 자금의 가장 기본적인 출처는 한인회의 회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회원이 회비를 지불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한인회는 일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인회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거기에 회비를 내겠는가?"하고 일축하여 버리는 교민이 계시다면 한번다시 생각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불편들이 이해에도 또 있다면 그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겠습니까? "한인회에는 전화를 받는 직원도 없으니, 참" "다른 민족들은 그래도 정부에 신청하여서 자기 것을 찾아쓰는데 한국교민은 무엇을 하나!" "시애틀에는 어디에가서 교포의 일을 물어 볼만한 곳도 없어!"

"그런데 한국교민이 이 정도의 수라면 무어라도 하여야지!"  
이와 같은 불편들만이라도 없는데 여러분 각자가 지불하시는 년 십불(10.00)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내가먼저 도와야지"하는 태도로 회비를 내어 주십시오.

지난해인 1983년도에 꼭 필요하였던 비용중 몇가지 만이라도 보시면 한인회가 필요로 하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한인회비에 어떠한 태도를 갖으셔야하는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사무실 사용료	\$2,892.46
전화 사용료	\$ 729.23
사무실직원 급여	\$3,637.00(1월-9월까지)
회의및 잡의비	\$ 560.74
사무용품및 인쇄비	\$1,530.46

합 계 \$9,349.89

이 \$9,349.89에는 한인회보 발행비(11,474.53) 및 각종행사비(\$20,074.61)가 포함되어있지 않은것입니다. 꼭 필요한 \$9,349.89을 위하여서도 교포 성인 1천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여 주셔야 하는것입니다. 그외 한인회보및 몇가지 행사를 위한 비용을 감안하여 보면 모두 적어도 삼천오백여의 교포께서 회비를 납부하여 주셔야 한다는것입니다.

이 한인회는 무엇이라고 하여도 우리 각자와 우리 교포 전체를 위하여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지불하는 \$10.00이 모여 무엇인가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한인회비 납부에 한번쯤 관심을 기울여 주실수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이 회비의 끝장에 한인회비를 보내실 봉투를 첨부하였으니 지금곧 한인 각 회원당 \$10.00, 부부인 경우 \$20.00을 쓰셔서 봉투에 넣으시고 한인회로 보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곧 써서 잊어버리기 전에 보내어 주십시오. 수표는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으로 끊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인회 회장  
오 계 희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아리랑의 밤 :**

씨애틀 한인회사상  
유례없는 성황

1983년도 "아리랑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17일 밤 여싱슨대학교 학생회관 허브홀 에서 많은 교포들이 모인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 함께 의의있게 보내어 졌다.

이날 약 600여의 교포들이 단장을 하고 묵은 해를 보내는 가벼운 기분으로 모였는데 이색적이고 우아한 장내 장식과 넓은식장에 더욱 인상을 받았으며 모두가 화기애애한 가운데 정다운 담소를 나누었었다. 부부동반한 대 부분의 이들 교포들은 한인회가 준비한 무료 음료와 스낵을 즐기었으며 곧이어 신,구 이사 임원단의 교체를 시행하는 식을 거쳐 묵은 해를 보내는 다채로운 송년 파티에 들어 갔는데 "지금까지 갖은 아리랑의 밤중에서 가장 다채롭고 흥미가 있으며 의의가 깊다"는 것이 일반 의 평이었다.

신,구 이사 임원단의 교체식에서 이 문수 총영사는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오늘날 씨애틀 한인회가 이만큼 발전한것은 조국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하였으며 '83년도 한인회 이사 임원단의 노고와 봉사를 치하하였다. 이어 구 이사 임원을 대표하여 신호범 회장은 작년과 같이 실직과 불경기의 어려운 때임에도 교포사회가 몰심양면으로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어 준것에 감사하고 이사, 임원단이 그 감사에 보답코저 진심으로 일할수 있었다고 1983년도의 한해를 회고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정돈된 씨애틀 한인사회의 발전에 신념을 표시하고 이사 임원들의 노고에 크게 감사하면서 1984년도의 한인회에도 다름없는 교포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특히 1983년 부터 회장

은 각임원에게 감사의 감사패를 증정하는것을 전심으로 만들것을 정하였는데 감사패를 주고 받는 한인회 회장과 임원단의 모습은 의의 있는 것이었다.

이날 장내에는 많은 백인계 미국인이 참여 하였는데 신호범 회장은 이들을 위하여 아리랑의 밤과 한인사회를 영어로 설명하였다.

이어 1984년도를 맡은 이사 임원단을 대표하여 오 개혁씨는 신호범 회장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전달하고 83년도가 이루어 놓은 공을 이어 그외에 교포사회의 새로운 요구를 따라 교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갈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지속적인 협조와 상호 의의에 의하여 다같이 일하여 갈것을 부탁하는 간단한 인사 를 말했다.

제일부를 이어 제이부는 신임임원단의 부회장이인 이현진 씨가 그 사회를 맡았으며 그 의 의의에 찬 유용의 사회는그 많은 교포성중을 하나로 웃음과 환희의 순간으로 장식하여 갔다. 특히 각계 많은 인사와 업소 그리고 식품업소가 경품한 100여종의 경품을 두고 추첨, 노래자랑, 장기노름, 그리고 사이 사이에 끼인 사교댄스로서 장내는 우정과 정담의 분위기로 찼었으며, 자정이 지날때까지도 끝일 줄 모르고 춤과 노래와 장기 자랑으로 즐기었다.

**『한인회 활동』**

**총영사관 예방**

'84년도 한인회 회장단및 이사진과 임직원 7명은 '84년 1월13일 오전 11시 주 씨애틀 총영사관을 공식방문하고 1시간 30여 분 동안에 걸쳐 금년도 사업개요와 상호협조 문제등에 대하여 환담을 나누었다.

이 문수 총영사는 한인회 회장단및 임직원들에게 수고 한다고 치하하면서 상호적국 협력하여 한인사회의 발전과 안정 그리고 권익보호및 신장에 기여 하자고 강조하였으며, 오 개혁 회장은 우리의 국가를 대표한 총영사관임으로 의례적으로 신임 인사차 공식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84년도 사업은 각계 각층의 여론과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전체 한인사회의 고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것이며 대내적으로는 각 기관및 사회문화 종교 단체와 상공인 등 모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해 나갈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교포의 안정된 힘과 국위를 선양 시키고 한인사회의 고민들의 권익을 갖고 이를 보호 신장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씨애틀-약싱슨주 한인사회가 날로 성장하고있어 우리가 다 함께 마음과 힘을 합하여 굳게 뭉쳐서 대외에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문수총영사는 미국사회에서 우리 교포들이 일하는 것은 희생적이다. 그 희생의 목적은 발전을 위한것이며 발전을 통해서 단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서 교포들의 지위를 확실히하고 그러전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롭게 성장할수 있도록하며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일하며 뿌리를 찾아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헌할수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위해 각자

가 희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오와 희생이 없으면 정신적 철학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기반은 하루속히 다져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신임 임원회 일련의 회의**

'84년 신임 임원단은 한인회의 방향 설정과 교포봉사 사업 년차계획 설정을 토의하기위한 일련의 회의를 12월22일 한인회 사무실에서 갖은 첫모임을 시작으로 1월 5일, 1월12일에 걸쳐 수차례 모임을 가졌다. 신임 회장단은 첫 모임에서 한인회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한인회는 83년도의 업적을 계승하면서 필요에 따른 새로운 지향을 보여이 나가는것을 원칙으로하며 대외적으로 이루어 놓은 큰업적을 그대로 지향하면서 대내적으로 좀더 개인인 교포에게 도달 될수있는 직접적인 사업을 구상하여야 할것이며, 한인회가 한인사회 단합의 상징적인 구심점의 역할을 할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인회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몇개의 사업이외의 구체적 사업은 12개의 각부서 부장이 자신의 분야의 특수업무를 착안하여 직접구상 계획하며 회장단에 제출하며 회장단이 이를 가감 선택하여 전체 회의에 의결을 얻어 '84년의 년차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다.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YAMAHA KAWAI STEINWAY SCHIMMEL

**세계피아노사**

365-5540  
11325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25

**홍인표 신경·정신과 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I TOWER #707  
(206) 587-5747, 587-3748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움시다!**

# 『한인회 활동』

1983년도 재무 결산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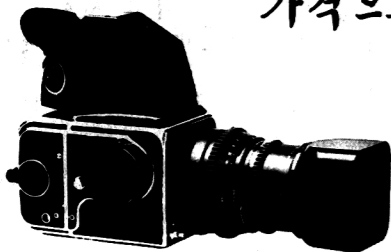
## 신구 한인회장 업무인수 인계

시애틀-악싱촌주 한인회 신구회장 업무인수 인계가 1984년 1월15일 오후 4시 한인회 사무실(Lake City School)에서 신구 회장단 및 임직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신임 오 계획 회장은 '83년도에 많은 업적을 남긴 신 호범회장이하 전 임직원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 하면서 모든 사업을 계승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해서 명실상부한 한인회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한인회가 될것을 다짐하였으며 구 회장단에서는 많은활동과 절제있는 예산 집행의 결과로 \$2026.23의 차감 잔액이 인계 되었으며 시종 여유있고 밝은 분위기 가운데 끝마쳤다.



# KO'S 사진관 & VIDEO

최신장비와 기술로 여러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 <각종 기념칼라 사진전문>

- ◎백일, 돌, 결혼, 회갑, 각종단체
- ◎여권 및 시민권을 사진
- ◎필름현상 및 인화
- ◎출장 촬영 환영

### <VIDEO PRODUCTIONS>

- ◎비디오 출장촬영 환영
- ◎16 m/m 및 8 m/m 영화촬영
- ◎비디오 테이프 편집 영상, 음향, 제작, 카피
- ◎한국영화,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대여

전화 (206)775-0896

대표 고 광 준

4812 225th Pl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수입 내역		지출 내역	
1. 82년도 이월금액	\$ 479.48	1. 사무실 사용료	\$ 2,892.46
2. 83년도 한인회비	\$ 3,530.00	2. 한인회보 발행비	\$ 11,474.53
3. 일반 기부금	\$ 7,595.07	3. 각종행사 광고비	\$ 853.24
4. 건축 기금	\$ 1,400.00	4. 전화 사용료	\$ 729.23
5. 광고 수입금	\$ 4,720.00	5. 사무실 직원 급료	\$ 3,637.00
6. 각종행사 찬조금	\$ 26,252.80	6. 한글학교 지원	\$ 2,466.57
(한국의밤 표값 포함)		7. 각종행사비 지출	\$ 20,074.61
7. Boeing회사 사무용품 기부금	\$ 7,950.00	a. 조찬 기도회	\$ 1,089.56
8. 아리랑의 밤 입장권 수입	\$ 3,890.00	b. 사무실 현판식	\$ 168.08
9. '84년도 회장단 신립금	\$ 1,600.00	c. 3.1절 기념식	\$ 48.02
		d. 한국의 날 행사비	\$ 9,457.13
		e. ETHNIC 행사 등록비	\$ 25.00
		f. 한글학교 야유회	\$ 424.35
		g. SEA FAIR 행사비	\$ 2,074.22
		h. 8.15 기념식	\$ 173.75
		i. 밴쿠버-시애틀 야유회	\$ 752.19
		j. 경노 잔치	\$ 2,060.00
		k. '83년도 총회	\$ 48.50
		l. 아리랑의 밤 경비	\$ 3,753.81
		8. 사무실 비품구입 대금	\$ 7,697.99
		9. 섭외비	\$ 383.94
		10. 회의비	\$ 176.80
		11. 사무용품 인쇄비	\$ 1,210.86
		12. 사무용품 구입비	\$ 319.60
		13. 각종 찬조금	\$ 1,800.00
		14. 잡비(은행수수료, 분기보고서)	\$ 274.29
		15. 건축기금 비축금	\$ 1,400.00
		16. '84년도 회장단 이월금	\$ 2,026.23
총 계 \$ 57,417.35		총 계 \$ 57,417.35	

1983년(1월, 12월분) 입금 명세

한인회비

박설봉 \$ 20.00  
 이광은 \$ 20.00  
 HWAN JA PERREAULT \$ 10.00  
 이광술 \$ 20.00  
 김일근 \$ 20.00

일반 기부금

한만섭 (12월회비 누락되었음) \$ 100.00  
 신로범 (각종회의및 섭외 지출비용) \$476.80  
 토명재 (12월호 광고비등 기부금으로 정정) \$300.00  
 김동호 (Address Label수고로 50% 감액) \$486.94  
 신로범 (사무실 sofa기증) \$200.00

광고비

영미정 \$ 360.00  
 이규영 \$ 450.00  
 이집태 \$ 180.00  
 Century부동산 \$ 40.00  
 토명재(1984년 1월분) \$ 60.00  
 조병규치과 \$ 80.00  
 중앙식품 \$ 100.00  
 Brim 인쇄 \$ 240.00

\* 정정

1983년 12월호 한인회비 (12페이지) 재정보고란 광고비  
 지불자 양복점을 양복점으로 정정함.

**꽃** 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든 애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밤 243-5160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1984년도)

업도승 \$ 20.00	허권 \$ 20.00
홍인표 \$ 20.00	백경숙 \$ 20.00
곽종세 \$ 20.00	KAE Y MULLINS \$ 20.00
문근성 \$ 20.00	박승희 \$ 20.00
박진문 \$ 20.00	최학기 \$ 20.00
신로범 \$ 20.00	박래호 \$ 20.00
이득립 \$ 20.00	이정연 \$ 20.00
오계희 \$ 20.00	김경배 \$ 20.00
이순모 \$ 20.00	윤홍남 \$ 20.00
이현진 \$ 20.00	이학유 \$ 20.00

건축 기금 (1984년도)

이득립 \$ 1000.00  
 ('83년도 이사장)

# 박회랑

□ 각종표구 액자 전문  
 □ 서예, 수예, 동양화, 평풍판매제작  
 □ 각종 고급 서양화 특별염가 판매, 초상화

## 각 품

□ 아크릴포함. 한글, 한문, 영문  
 각종 특수체 및 조각판제작  
 사무실 762-5410 집 242-6801  
 월~토 오전9시~오후5시

1515 Roxbery St. SW Seattle WA98106  
 (중앙식품 근처)

아리랑의 밤 찬조금

홍인표 \$ 100.00  
 김상철 \$ 100.00  
 곽상영 \$ 50.00  
 김현중 \$ 100.00  
 권태원 \$ 200.00  
 토명재 \$ 200.00  
 박창식 \$ 100.00  
 정철식 \$ 50.00  
 Simon Shim \$ 70.00  
 의환은행 \$ 500.00  
 김재호 \$ 100.00  
 부림인쇄 \$ 100.00  
 Ronald Brown \$ 50.00  
 Lea Armstrong \$ 50.00  
 한일각 \$ 200.00  
 Fred Y. Jun \$ 100.00  
 박은호 \$ 50.00  
 이계희 \$ 50.00  
 이순모 \$ 100.00

조기루 \$ 20.00  
 이진후 \$ 50.00  
 이득립 \$ 250.00  
 차경수 \$ 100.00  
 Hasik Smith \$ 100.00  
 Seattle무역관 \$ 100.00  
 New Mode Tailor \$ 20.00  
 신등준 \$ 200.00  
 평등자문위원회 (황수철) \$ 100.00  
 문근성 \$ 50.00  
 장부관 \$ 50.00  
 한국서적 \$ 50.00  
 Susan Kim \$ 100.00  
 신로범(양주) \$ 500.00  
 Grand Foods (경품) \$ 150.00  
 제일식품 (경품) \$ 65.00  
 오대양 (경품) \$ 30.00  
 현대식품 (경품) \$ 269.00  
 중앙식품 (경품) \$ 379.05

**황수철 부동산**  
 NORTHEND 및 BELLEVUE 지역  
 522 - 7566

**정문언보험 FARMERS INSURANCE**  
 9525 AURORA AVE. N.  
 SEATTLE, WA 98103  
 (206) 523-9111 • (206) 588-0611

##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9시~6시)

**367-5570**  
**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10시7시)

**838-3180** 시애틀  
**927-4996** 타코마

시애틀 한인학교 신입생 모집

시애틀 한인학교는 오는 2월 3일을 기하여 교과정을 개편하고 또 학교수업일시를 금요일 저녁 7:00시 - 9:45분으로 변경하여 새학기를 시작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학부모님의 이용을 권합니다.

변경된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45)  
장소 : 한인회 사무실 건물 (2611 125th N.E. Seattle)

교과목 내용:

일반과목

- |               |               |
|---------------|---------------|
| 1) 한국어 회화     | 3) 한국어 고전무용   |
| 2) 한국어 읽기, 쓰기 | 4) 한국 무술(태권도) |

특수과목

- |            |      |
|------------|------|
| 유치원, 국민학교생 | 중고교생 |
|------------|------|

- |               |              |
|---------------|--------------|
| 1. 한국 음악      | 1. 한국 역사와 습관 |
| 2. 한국 고전 이야기  | 및 가치관        |
| 3. 한국 문학 영학감상 | 2. 서예와 붓글씨   |
| 4. 한국 공작      |              |

기타 본교의 특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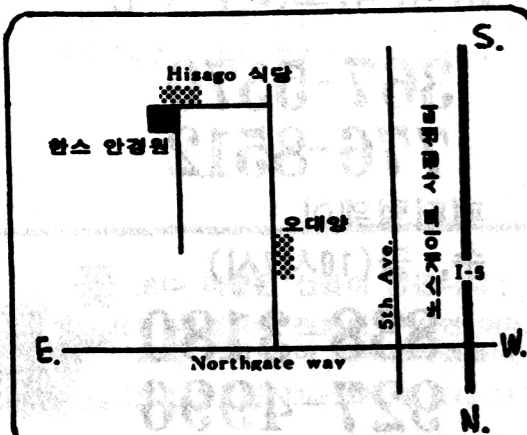
1. 본교 학생은 한국의 학교와 PenPal교실을 하며 한국어의 읽기, 쓰기, 회화, 듣기, 말하기를 키운다.
2. 본교는 시애틀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에 참여 시킴으로서 활발한 교과정을 제공한다.
3. 본교는 지역사회 유명인사를 초청함으로써 교과내용의 질을 높인다.
4. 본교는 부모의 학습참여를 지도하고 참여케 함으로서 학생의 개별지도와 학습의 효과를 높인다.

이상의 한인학교 지원에 대하여 더 문의하고 싶으신분은 다음의 전화에 연락하여주시십시오.

전화: 522-2494, 365-4128, 747-7452

한스 안경원

- 안과 처방에 의한 안경 및 콘택트 렌즈
  - Appointment에 의한 정확한 시력검사
  - Medicare 및 직장건강 보험의 vision care service
  - 품질을 보증하는 고급안경테 및 렌즈
-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WA 98125  
(B)363-5007, (H)362-8330



**제일 음악 학원**

- 시애틀 최초로 개원, 선착순 10명 1개월 무료지도(월 4회)!! 자녀 교육?
- 피아노, 각종악기, 성악개인지도.
- 성인키타-초보자 단기완성
- 생활음악, 복음성가, 교회 반주자를 위한 특별지도
- 완벽한 지도와 유능한 교수진(한·미인)
- 출장지도, 교통 편의 가능성.

원장 김 세 만  
367-2273 (FOR-CARE)  
3102 NE 145 St. Seattle, WA 98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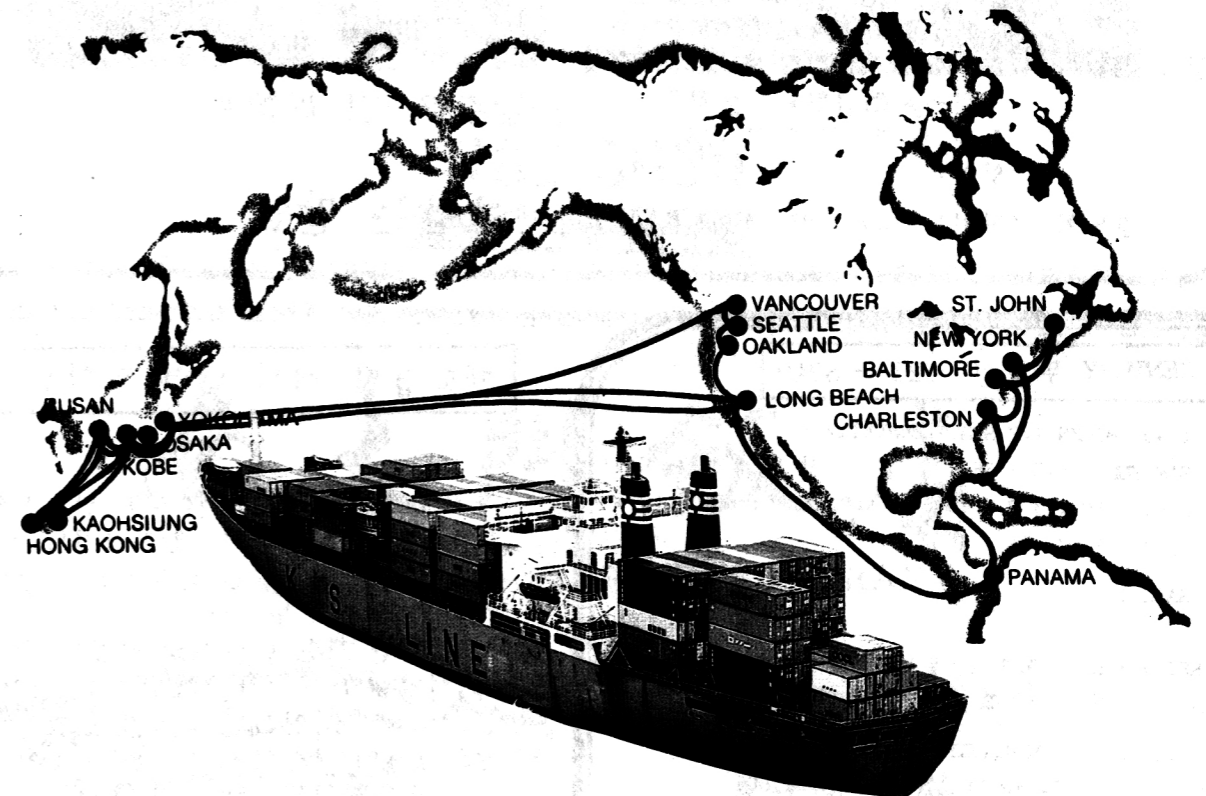
한국 해운의 기수

**K.S. LINE**

- 수출입 화물
- 귀국 이삿짐
- 창고업
- 통관업무

미국과 동남아를 3일 간격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귀택의 이삿짐은 부산·서울 편리한 곳에서 통관 찾으실수 있습니다.



(206) 625-1960

2121 Fourth Avenue Suite 1520 Seattle WA 98121



- |          |               |
|----------|---------------|
| 롱비치 지점   | (213)437-0431 |
| 뉴욕 지점    | (212)422-5959 |
| 샌프란시스코지점 | (415)777-2600 |
| 시카고 지점   | (312)893-7500 |
| 휴스턴 지점   | (713)227-3261 |

## 『교포사회 행사안내』

### 시애틀 한인 경노회 소식

오는 2월 18일 오후 7:00 - 11:00까지 한인회 건물 강당에서 시애틀 한인 경노회 주최로 노인익안 및 경노의 밤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경노회원 및 많은 노인들이 참석하여 주실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 : 1984년 2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 11:00까지

2611 125th St. N.E.  
Seattle, Wa 98125

참가대상 및  
회비 : 경노회원 및 전 노민 (성인)  
회비 - \$6.00

행사 내용 : 김추춤, 악발자전거, 장기 자랑, 노래자랑, 수수께끼, 추첨 등 다채로우며 상품도 있음.

경노회 전화번호 (206) 937-8046

### 악성근주 음악인 동우회 소식

1984년도 악성근주 음악인 동우회 정기총회가 지난 1월 7일 오후 2:00 한인회 건물 강당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제 5대 악성근주 음악인 동우회장에 온 한복씨가 피선되었고 3월중에 "싱가 익 밤", 11월중에 "가족의 밤"을 열기로 결의 하였다고 한다.

정규 음악대학을 졸업한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므로 뜻이 있으신분은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인 동우회 연락처: (206) 367-4430  
(온 한복 회장)

## 알리는 말씀

### 간호협회에서 알려 드리는 말씀

미국 의료정책의 변경으로 만성질환이나 암으로 사망진단을 받은 환자이거나 장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앞으로는 가정에서 치료하고 입원하게 됩니다.

우리 한인 가운데 이러한 사정에 처해서 치료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요령을 잘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가 있으시면 한인 간호협회에 연락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할 것입니다.

연락처 : 장 봉 선 455 - 9473  
노 계 순 282 - 5451  
김 학 자 823 - 5669  
나 상 혁 822 - 2326

악성근주 한인 간호 협회

Center Oriental Grocery & Gift

## 중앙식품

- 한국, 일본식품 ● 선물, 일제그릇 ● 싱싱한 야채류
- 신선한 생선 및 고기류



● 영업시간 일주일내내 9 A.M. - 9 P.M.

762-5620

9641 - 15th Avenue S.W.  
Seattle, Washington 98106

### CENTURY 부동산 223 - 8949

(400 BOREN AVE SEATTLE, 98114)

SAM YUN : 878 - 3647 이 양 남 : 363 - 0443

SUSAN KIM : 392 - 8535 MAX LEE : 881 - 6274

김 일 영 : 874 - 4452

이달의 SALE !

\* MARKET + 3 B R HOUSE (건물포함) - 주인은리학  
295,000 + 재고 30% D/N 월매상 25,000 + GAS

\* SANDWICH & DELI MART (KIRK LAND)

159,000 + 재고 55,000 D/N 월매상 27,000  
(집을 담보로 하실수 있는분)

\* 세락소 (DRY + COIN)

145,000 + 재고 6 만 D/N 년매상 125,000월수익 6,000

\* 세락소 : 11만 + 재고 55,000 D/N 년매상 9만불

\* MARKET (고기, 채소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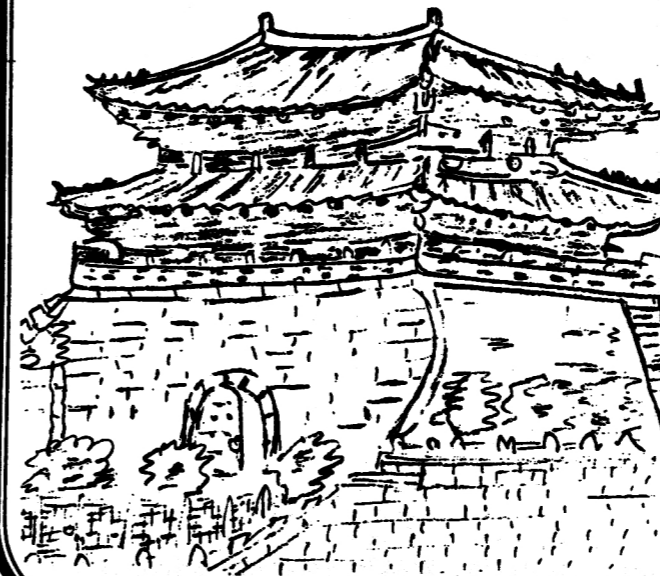
35,000 + 재고 약 1만, ALL CASH  
월매상 11,000 - 12,000 월 수익 25,000 - 28,000

\* HOUSE NO DOWN 하고 살고 있는 집

5% or 10% D/N, 기약 다수 Listing 있음.

## 南大門飯店

SOUTH GATE CHINESE RESTAURANT



● 북경식 중화요리

● 단체, 연회, 환영

영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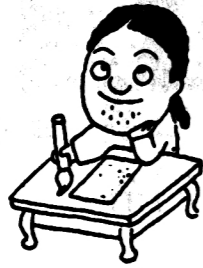
일~수요일 11시~오후9시

목~토요일 11시~오후10시

전화 : (206) 248-2250

15859 Pacific Hwy Seattle, WA 98188

『원고 모집』



한인회보는 교민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이민생활에서 얻은 새다른 성공담, 실패담, 미담, 인정과 해학이 깃든 에피소드. 그리고 우리의 습성, 문화, 가치관의 갈등속에서 터득한 새로운 삶의 여지를 담은 글들:

- 시
- 시조
- 풍트
- 수필
- 수상
- 희곡
- 단편소설
- 여행기
- 탐방기
- 풍물묘사
- 논문
- 비평
- 생활정보

이 외에도 한인사회에 대한 제언 또는 특별한 문제나 주제에 대한 의견이나 건설적인 비판을 잘 엮어서 정리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고 편집부의 재량에 따라 삭감, 편집될수 있으며 게재여부도 결정될수 있습니다.

(한인회보 편집부)

김철준 보험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씨애틀 사무실: 546 ~ 6586  
 집: 367 ~ 1534  
 타코마 사무실: 588 ~ 0333  
 18130 MIDVALE AVE. N.  
 SEATTLE, WA 98133

순 한국식 중화요리



- 일류 요리사의 순 한국식 진미 요리로써 성실껏 한인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 짜장면, 짬뽕, 군만두, 양장피잡채, 팔보채, 탕수육, 라조기, 해삼탕, 불고기 기타 각종요리
- Lunch Special \$3.25
- 김치 무료제공

영업시간

화~목 11:30~10:30  
 금~일 12:00~11:00  
 ●월요일은 쉽니다.

★TO-GO도 합니다.

14614 15th Ave NE SEATTLE

전화 365-9174

광고 안내

한인회보를 신속한 한인사회소식과 함께 사업주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실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방침을 정했습니다.

1. 발행부수: 매일1회 정기적으로 발행됨.
2. 광고도안: 각업체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특수한 도안을 제작하고는 무료로 광고도안 상담함.
3. 인쇄의 선명도: 사업주가 만족하시도록 인쇄방법의 개선등으로 노력할것임.
4. 발행부수: 발행부수를 늘려서 더 많은 고객들에게 배포하고 광고효과를 높일것임.
5. 장기계약: 3개월이상 6개월 1년등으로 나누어 장기계약 업주에게 할인의 혜택을 마련하여 업주의 편의를도모함.

규격별 광고료

일반 광고	특수 광고
내부 전면 120.00	뒤표지전면 200.00
내부 4면 80.00	뒤표지안쪽전면 150.00
내부 6면 50.00	3행광고 (Classified ad) 180.00
10.00(할인없음)	앞표지안쪽전면

할인내용  
 1년 계약 30% 할인  
 6개월 계약 20% 할인  
 3개월 계약 10% 할인

\* 공관및단체, 주재상사, 기획, 한인업소등 모든 기관과 업소등을 수록하여 연간 2회에 걸쳐 회보를 통하여 각가정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광고를 희망하시는분은 한인회 (362-4500 : 2:00 P.M. - 6:00 P.M.사이)나 547 - 3344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하바 하바 비디오 및 사진관

비디오테이프 대여

존경하는 교포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3년도에도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돌아오는 새해에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TEL: (206) 475-6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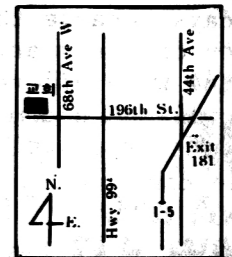
●출장 촬영 환영●

결혼·약혼·돌·회갑사진  
 영주권·여권·시민권사진  
 각종연회 및 파티사진예약  
 받습니다.

씨애틀 한인 침례교회



이국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여기 서로를 위로하는 믿음과 사랑의 안식처가 있습니다.  
 다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눕시다.  
 ●미국침례교단 소속(American Baptist Church)  
 ●주일예배: 오후1시 ●삼일기도회: 수요일 저녁7시30분  
 ●구역예배: 금요일 저녁7시30분 ●새벽기도회: 주일새벽 6시



●교회: 6915 196th St. S.W. Lynnwood, WA  
 담임목사 정하경, 교우일동 ☎542-4391(목사관), 771-4662(교회)

**CULTURAL COLUMN:**

This column is prepared to provide for the understanding of our cultural heritages to our second generation in this immigrant Korean community whose dominant language is English. The first series is the traditional holidays and other subjects will be followed. Traditional holidays in our culture well tell many of the essence of that culture and this is the reason that we chose the subject.

**TRADITIONAL HOLIDAYS IN KOREA**

**Seoul-Nal(New Year's Day):**

The first day of January is called Seoul-Nal and is one of the biggest holidays in Korea culture. Many of the people, especially at rural area farmers, celebrate this day on the Lunar calendar which is around the early part of February. The whole family gathers to observe ancestral ceremonies and the younger ones of family offer New Year's greetings to the elderly members. The young ones go out to visit relatives and neighborhood to offer greetings.

Tteock-Guk is a special dish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served on this day. It is a type of soup made from chicken or beef with special rice cakes called Tteock.

The greetings offered by younger members of family to elderlies on this day is called Saebae(Bow). The elderlies give some compensation with money and children like to offer this bow.

**Dae-Borum (The First Full Moon):**

The fifteenth of January on lunar calendar is celebrated as one of the great holidays because this is the first full moon of the year. It has been said that the wish offered to moon at this night will be accomplished during the year. Under the bright full moon many people come out to the field and

hillsides and tell the wishes to the moon. They bow down to the moon. Farmers ask good harvest of the year and youngsters ask success and of their lovers.

There are many games offered to the youngsters in town. It is really lovely night to observe many games under the bright full moon with many torches brought out by people.

It is good season because farmers have good harvest at their store house. Many kinds of nuts are cracked, rice cakes are made, and rich wines are brewed. People enjoy this season with games and foods.

**Hansik(Cold Food Day):**

It is around the early spring because this comes on the second or third month of the lunar calendar which is around the fourth month of the year.

The special feature of this day is that people eat and serve only cold food. The custom comes from early China in memory of a loyalty made by a statesman to his only one king to his death of fire. To console his spirit, fires were not permitted to be lit on this day.

\* The next features of this column includes Dan-O, Chil-Sok, Chusuk, and Dong-Gi.

**Lee's 태권도도장 개관**



이번 본인이 Federal way showbiz pizza 이층에 태권도 도장을 개관하여 교민자녀 여러분을 지도하겠아오니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범 이 정 언

31405 18th Ave S Suite #5

Federal way WA 98003

☎ 839-3055(아름마상회와 대한여행사옆)

**김 목 공 소**

● 신축 ● 증축 ● 수리 ● 실내장식



● 크고 적은 일을 막론하고 성심 성의껏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웁고

● 거리제한 없이 무료로 견적하오며  
● 언제라도 전화문의 환영합니다.

※ 최신형 공구 및 장비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드립니다

소문난 김 대 진 목수

**771-8019**

3825-191st S.W.. Lynnwood, WA 98036



**박약국**

씨애틀 - 워싱턴주 최초의 한약국

약사 박 정 일 (미국에서 약대 전공정 수료)

- 신속, 염가 처방조제
- MEDICAL, BLUE CROSS, MED 등 보험 취급
- 건강상담 및 혈압 무료 측정
- 우황청심환, 응담, 녹용, 활명수
- 세계 유명 BRAND 화장품 및 선물용품
- 각종 귀국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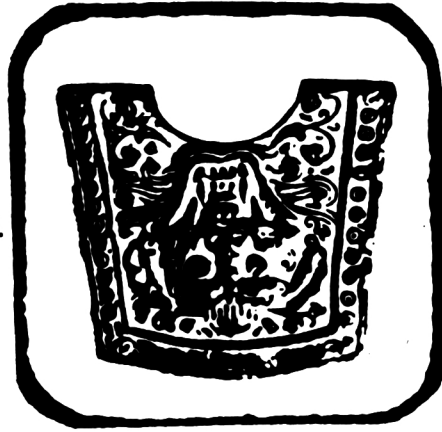
**PARK'S PHARMACY**

그랜드식품 내  
**527-3010**  
8512-20th Ave. N.E.  
SEATTLE, WA 98115

※매주 화요일은 휴업합니다



# 영미정



한국 최고의 궁중요리사  
드디어 영미정 주방에  
초빙되었음.

84년1월1일부터

일본식 요리 개시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 넓은 주차장 시설

(씨애틀 최대 규모와 격조높은 나이트 클럽)

※ 가족외식 ※ 친목회식 ※ 귀한손님접대 ※ 축하연등

모임에 따라

10명에서 150명 400명 까지

한자리에 모실수 있습니다

※가정파티 출장 서비스 함.

## YOUNG ME RESTAURANT

### 623-3112 대표 조 영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220 4th Ave So Seattle, WA 98104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o Seattle, WA 98134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HAH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1146